

“명가재건 위해 봄 마중 일찍 갑니다”

KIA 김원섭, 동료 4인방과 내일 콰 출국 발목 수술후 본격 재활훈련...대장정 시작

부상으로 악몽 같은 한해를 보낸 KIA 외야수 김원섭이 일찍 봄을 맞는다. 김원섭은 20일 송은범,곽정철,박지훈,김주찬과 콰으로 출국한다. 이들은 따뜻한 콰에서 본격적인 재활훈련을 하며 일찍 봄을 열겠다는 각오다. 70일이 넘는 대장정의 시작. 김원섭은 콰훈련이 마무리된 뒤 바로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 참여할 예정이다. “얼마나 야구 하고 싶은지 알아요?” 김원섭이 불쑥 꺼내놓은 말에 그의 울 시즌이 담겨 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상이었다. 또 생각지도 못하게 길어진 재활이었다. 김원섭은 지난 6월 베이

스를 잘못 밟아 왼발목 인대파열 부상을 당했다.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지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도록 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김원섭은 “부상을 당한 순간을 생각하면서 많이 후회했다. 도루를 하려는데 투수가 견제를 했다. 견제가 늦게 와서 슬라이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베이스가 멀었다. 순간 베이스 중앙을 잘못 밟았고 한발에 중심이 실리면서 발목이 돌아갔다”고 당시를 얘기했다. 악몽은 계속됐다. 경기에 나서기 위해 수술이 아닌 재활을 선택했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재활 단계가 높아질 수록 통증은 심해졌다. 뺨조각까지 발견되

면서 결국 지난 9월 수술대에 올랐다. 평소 통증이 있던 팔꿈치까지 수술하면서 잊고 싶은 한 해가 됐다. 김원섭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나으니까 재활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팬들은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느냐고들 많이 하셨는데 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못했다. 다행히 수술하고는 느낌이 좋다. 지금은 빠르지는 않지만 뛰기도 하고 티배팅도 하고 있다”고 웃었다. 야구선수라면 흔한 수술과 재활과정이지만 김원섭에게는 처음 겪는 낯선 경험. 특히 한 번도 앓을 태운 적이 없던 발목이기에 더 힘든 시간이었다. 김원섭은 “야구하면서 팽창수술 빼고 수술 한번 안해서 나를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두 군데나 했다. 예전에는 한기가 같은 후배들이 왜 그렇게 재활을 오래할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야구가 그림자”고 말했다. 야구에 대한 간절함으로 일찍 봄을 맞으려 가지만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끝나지 않

은 재활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 속에 다시 출발선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김원섭은 “수술을 하고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재활이 순조로운데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가면 좋겠다”며 “경쟁에 대한 부담은 없다. 지금까지 야구 인생에서 한 시즌이라도 경쟁 없이 주전으로 뛴 적은 없던 같다. 항상 백업으로 시작했다가 누군가 부상 등으로 빠지거나, 다른 선수가 우선 고려되다가 그들이 부진하면 기회가 오곤 했다. 항상 경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담담하게 또 다른 출발을 얘기했다.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을 하면 야구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늘 젊고 열정이 넘친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다는 김원섭. 말이 아닌 몸으로 선배의 역할을 하고 또 KIA 선수로 살겠다는 김원섭의 2014시즌은 이미 시작됐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원섭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뛰는 기성용이 18일(한국시간) 첼시와 2013-2014 캐피털원컵 8강전에서 연장전 종료 2분을 남기고 결승골을 넣은 후 환호하고 있다. 스완지시티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다 9월 선덜랜드로 임대된 기성용은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극적인 골로 장식했다. /연합뉴스

기성용, 살아있네~

캐피털원컵 8강전 연장 후반 극적 골 2-1로 첼시 격파...선덜랜드 4강 주역

기성용(24·선덜랜드)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짜릿한 첫 골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공 시대'를 예고했다. 기성용은 18일(한국시간)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3-2014 캐피털원컵(리그컵) 8강전에서 1-1로 맞선 연장 후반 13분 결승골을 터뜨려 선덜랜드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8월 스완지시티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무대를 밟은 기성용은 이 경기에서 '마수결이 골'을 신고했다. 특히 '강호' 첼시를 상대로 팀의 역전승에 마침표를 찍는 드라마 같은 골을 터뜨려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정규리그에서 골짜로 추락한 선덜랜드는 기성용의 결승골을 앞세워 정규리그 3위인 첼시를 잡아내고 리그컵 4강에 오르는 기

쁨을 맛봤다. 올해 유독 그라운드 안에서 큰 부침을 겪었던 만큼 이 득점은 기성용에게 단순한 골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성용은 지난 7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최강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홍명보 감독 체제의 국가대표팀에 부름을 받지 못했고, 올 시즌 들어서는 스완지시티에서 설 자리가 좁아져 9월 선덜랜드로 임대됐다. 그러나 선덜랜드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국가대표팀에도 다시 합류했고, 실력으로 보답하겠다는 절치부심했다. 이날 후반 교체투입된 기성용은 연장전에서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날려 득점

포를 예고했다. 연장전 2분을 남기고 터진 역전 결승골은 기성용의 장점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파비오 보리니의 짧은 패스를 받은 기성용은 수비수를 제치며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했고, 마크 슈워제 골키퍼가 움직이는 방향을 파악해 정확히 빈틈을 노려 골대에 꽂았다. 기성용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을 넣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팀의 4강 진출에 보탬이 되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며 “오늘 승리한 덕분에 우리 팀은 자신감에 차 있다.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많은 만큼 승리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규리그 최하위로 떨어져 분위기가 침체한 선덜랜드는 기성용의 이 ‘한 방’으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포에트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경을 제시한 이후 첫 경기에서 ‘공격 본능’을 뽐낸 그가 팀의 우승에 힘을 보태고 ‘골짜 탈출’에도 앞장설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K리그, 사랑나눔 릴레이

전남드래곤즈·수원 삼성 등 쌀·연탄 이웃돕기

K리그 선수들이 이웃돕기 활동을 하며 연말·연시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19일 광양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4200kg의 쌀을 전달한다. ‘감사나눔 희망골’을 통해 적립된 쌀로 1kg 당 200kg를 적립했다. FC 안양도 24일 지역 보육시설을 찾아 쌀 500kg를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수원 삼성은 23일 올 시즌 선수들이 직접 솜사탕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과 선수단 성

금 등 463만4850원을 사랑의 기금으로 전달한다. 어린이 점퍼 250벌도 마련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연탄 나눔행사도 준비됐다. 프로축구 연맹은 24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의 104가구에 연탄을 배달한다. 고양 Hi FC와 충주 험멜도 지역 내 소외 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은 어린이 재단의 산타 원정대 행사를 위해 18일 이범영 등이

참여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을 포장한다. 지역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 행사도 마련됐다. 경남 FC는 19일 창원 명서중학교를 찾아 축구클리닉을 연다. 포항 스틸러스는 1월9일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 클리닉을 준비했다. 전북 현대에서는 최강희 감독이 직접 움직인다. 최감독은 19일 지역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한다. 성남 FC는 소외 계층을 초청해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며 의미있는 연말을 보낼 예정이다. 상주 상무의 겨울도 따뜻하다. 상주는 20일 상주 문화회관에서 승격 기념 행사를 열고 선수들이 마련한 500만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놓는다.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팬사인회도 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야구협, 오늘 ‘야구인의 밤’

광주시 야구협회(회장 나훈)가 19일 오후 4시30분 송정농협 경제사업장 2층에서 야구인의 밤 행사를 열고 한 시즌을 돌아본다. 좋은 성적을 거둔 팀과 선수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올 시즌 광주는 전국대회에서 7개의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특히 초등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성초가 KBO 총재배 야구대회 한리리그, 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서림초와 수창초는 KBO 총재배 서해리리그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화정초도 박찬호기 야구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총장증은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황금사자기·대한야구협회장기 4강에 빛나는 동성고는 32년 만에 부활한 야구대제전에서는 우승팀이 됐다. 우승을 지휘한 감독과 우승의 주역들은 각각 최우수감독상과 최우수선수상을 받는다. 야구대제전에서 동성고 사령탑을 맡은 장재근 홍익대 감독에게는 공로상이 돌아간다. <시상내역> ▲최우수 감독상 : 나길남(총장증) 신경호(대성초) 최길환(서림초) 류창희(수창

초) 유종연(화정초) ▲최우수 선수상 : 김동은(정성모(이상 수창초) 김재우·정혜영(이상 대성초) 정창대(서림초) 정도웅(화정초) ▲최우수 타격상(협회장상) : 박지훈(화정초) 이강규(무등중) ▲우수 타격상(동우회장상) : 오승윤(화정초) 박민규(진흥중) ▲최우수 심판상 : 허승현 ▲공로패 : 최완용·조계동(이상 부회장) 장진범 심판이사 홍유석 이사 신순욱(주)화인컴일렉스 대표이사 장재근 홍익대 감독 ▲감사패 : 박정하(주)전흥 대표이사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